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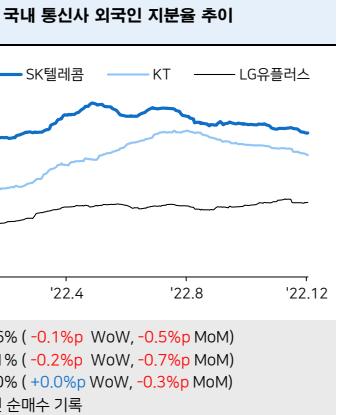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2022.12.26

1 주가 현황

| | 수익률(%) | | | | PER(x) | | PBR(x) | | 배당수익률(%) | |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
| | 1W | 1M | 3M | 6M | 2022E | 2023E | 2022E | 2023E | 2022E | 2023E | |
| KOSPI | -0.3 | 7.5 | -1.7 | -7.6 | 11.4 | 11.7 | 1.0 | 0.9 | 2.1 | 2.2 | |
| 통신업종 | 0.8 | 1.4 | -2.2 | -9.3 | 9.1 | 8.0 | 0.7 | 0.7 | 6.0 | 6.4 | |
| SK텔레콤 | 0.9 | -0.8 | -2.5 | -12.6 | 11.6 | 9.5 | 0.9 | 0.9 | 6.8 | 7.2 | |
| KT | 1.4 | 1.4 | -2.5 | -2.5 | 7.8 | 7.2 | 0.6 | 0.6 | 5.7 | 6.1 | |
| LG유플러스 | -0.4 | 5.3 | -0.4 | -12.7 | 7.9 | 7.1 | 0.6 | 0.6 | 5.3 | 5.8 | |
| AT&T | 0.9 | 6.0 | 6.9 | -10.2 | 7.4 | 7.5 | 1.1 | 1.0 | 6.4 | 5.9 | |
| Verizon | 2.3 | 7.8 | -9.8 | -24.1 | 7.6 | 7.7 | 1.8 | 1.6 | 6.6 | 6.7 | |
| T-Mobile | 2.2 | 7.4 | 5.6 | 12.6 | 72.9 | 22.3 | 2.7 | 2.7 | 0.0 | 0.0 | |
| NTT | 3.4 | -4.0 | 3.2 | -2.8 | 12.3 | 11.2 | 1.7 | 1.5 | 3.0 | 3.2 | |
| KDDI | 1.0 | -5.7 | -3.9 | -9.6 | 13.8 | 13.0 | 1.8 | 1.7 | 3.1 | 3.3 | |
| Softbank | -3.8 | -0.1 | 6.6 | 13.8 | 19.8 | 14.8 | 0.9 | 0.8 | 0.7 | 0.7 | |
| China Mobile | 4.2 | 6.3 | -1.4 | 2.5 | 7.9 | 7.3 | 0.8 | 0.8 | 8.1 | 9.3 | |
| China Unicom | 7.6 | 21.8 | 6.2 | 11.0 | 6.9 | 6.2 | 0.3 | 0.3 | 7.1 | 8.5 | |
| China Telecom | 5.8 | 9.6 | 7.7 | 2.3 | 9.2 | 8.1 | 0.6 | 0.6 | 7.1 | 8.6 |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자 부품

12월 넷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1.1%p 수익률을 기록하며 Outperform

과기부, 2023년 발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망 중립성 법제화 방안 추진 예정

인도, 5G 상용화 두달 만에 기지국 2만대 구축, 릴라이언스지오, 에어텔은 23년 말, 24년 초까지 전국망 구축 목표

국내 기관은 KT, LGU+ 순매수, SKT 순매도. 외국인은 LGU+ 순매수

금주 전망

금주는 특별한 이벤트 부재

KT CEO 경선 체제 돌입, 2023년 1월 중순까지 선임 절차 지연 가능성

과기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인하 시기인 2023년 상반기 기준 요금제 가격 인하나 신규 요금제 출시 여부 확인

정부는 취소된 28GHz 대역에 대해 제4 이동통신사업자 진입 추진. 2023년 1월 중 구체적인 방안 발표 예정

통신업종 캘린더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 주간 뉴스

KT · LGU+, 28GHz 주파수 반납…'신규사업자 등장 쉽지 않아'

(데일리인)

- 과기부, 5G 주파수 할당 이행점검 최종처분 결과 발표. KT와 LGU+ 5G 28GHz 주파수 최소 확정
- KT · LGU+, 2023년 11월 말까지 28GHz 지하철 와이파이 '예외 허용'
- 5~8호선에 구축한 지하철 와이파이는 2023년 상반기 내로 상용화될 예정

⇒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받을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할 방침

⇒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2023년 1월 중 발표할 계획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완료…'LTE · 5G 알뜰요금제' 가격 내릴까

(아이뉴스24)

- 과기부, 알뜰폰 요금 · 서비스 종량제와 수익배분방식(RS) 대가를 인하하기로 결정
- 알뜰폰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끌겠다는 취지
- 관건은 알뜰요금제 가격 인하 · 자체 신규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지 여부

⇒ 2023년 초 첫 조사를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

⇒ 도매단가 인하가 적용되는 시기에 요금제 인하 방안 검토, 신규 요금제 출시 가능성

인도, 5G 상용화 두달 만에 기지국 2만1000대 구축

(ZDNet Korea)

- 11월 말 기준으로 지난 10월 5G 상용화 합류한 인도에 2만1천 대의 5G 기지국이 구축
- 릴라이언스지오는 총 1.8만 대의 5G 기지국을 구축, 바르티에어텔은 3.3천대 기지국 설치
- 지역 별로는 델리에 5.8천대로 가장 많고,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등 주요 도시 중심으로 투자

⇒ 5G 투자에 가장 앞서 있는 릴라이언스지오는 2023년 말까지 5G 전국망을 구축한다는 방침

⇒ 바르티에어텔은 2024년 3월을 전국망 구축 목표 시점으로 설정

과기정통부, 이음5G 주파수 공급…총 18개 기관이 할당 · 지정

(ZDNet Korea)

- LG CNS · 한국항공우주산업 · 정부청사관리본부 · LG전자 등에 이음5G 주파수 공급
- 이음5G 주파수 지정이 9개 기관으로 늘어나며 총 18개 기관이 이음 5G 주파수 할당 · 지정
-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4.7GHz 대역의 신청 주파수 대역 전체 100MHz 폭을 공급

⇒ 과기정통부는 향후 학계에서 이음5G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기대

⇒ 정부청사관리본부, LG전자는 로봇, 센서를 통해 각각 시설관리 등의 분야에 이음5G 적용 예정

망사용료 논쟁 · 세계가 주목하는데… 법제화 장기표류 가능성

(디지털타임즈)

- 망사용료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7개 법의돼 있는 상황
- 11월 말에는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임원진 방한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관련 논의
- 미국, 유럽 등에서도 글로벌 CP의 망 투자 비용 분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 과기부, 2023년 발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망 중립성 법제화 방안 추진할 예정

⇒ 이에 '망 사용료 무임승차 방지법' 논의는 2023년까지 장기화될 전망

과기정통부, 5G특화망 실증에 내년 120억 투자…판교 · 대전 등 테스트베드 지정

(조선비즈)

- 정부는 20일 '5G 특화망 융합서비스 성과공유회'를 개최, '이음 5G'사업 성과 공개
- 2023년에도 과기정통부는 민간과 협력해 5G 특화망 확산을 본격 추진할 예정
- 실증사업에 참여한 42개 기업 · 기관들을 중심으로 하는 5G 특화망 멀라이언스도 출범

⇒ 2023년에도 민관분야 실증 예산을 올해 8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1.5배 확대

⇒ 5G 특화망 테스트베드를 5개소(판교, 대전, 대구, 광주, 구미)로 확충해 서비스 단말 출시 지원

4 주요 지표

| (집계달력) | 종가 (통화) | 시가 총액 | 매출액 | | 영업이익 | | 당기순이익 | | EBITDA | | EV/EBITDA (배) | | ROE (%) | | |
|--------|---------------|----------|-------|-------|-------|-------|-------|-------|--------|-------|---------------|-------|---------|-------|------|
| | | | 2022E | 2023E | 2022E | 2023E | 2022E | 2023E | 2022E | 2023E | 2022E | 2023E | 2022E | 2023E | |
| 한국 | SK텔레콤 | 49,000 | 8.4 | 16.0 | 13.3 | 1.2 | 1.3 | 1.9 | 0.7 | 4.6 | 4.1 | 3.8 | 3.8 | 9.5 | 8.0 |
| | KT | 35,800 | 7.3 | 20.6 | 19.9 | 1.3 | 1.4 | 0.9 | 0.9 | 4.3 | 4.3 | 3.3 | 3.1 | 7.5 | 8.1 |
| | LG유플러스 | 11,800 | 4.0 | 11.6 | 10.9 | 0.9 | 0.8 | 0.6 | 0.5 | 2.9 | 2.7 | 3.3 | 3.3 | 9.8 | 8.3 |
| 미국 | AT&T | 18.3 | 130.5 | 168.3 | 126.1 | 32.6 | 22.8 | 24.1 | 19.1 | 51.6 | 41.5 | 5.4 | 6.7 | 13.6 | 13.3 |
| | Verizon | 38.4 | 161.3 | 133.4 | 136.8 | 32.3 | 30.8 | 22.5 | 20.9 | 48.4 | 47.9 | 6.4 | 6.4 | 30.1 | 24.5 |
| | T-Mobile | 140.0 | 174.2 | 80.1 | 80.1 | 6.9 | 6.8 | 2.8 | 2.5 | 26.6 | 27.3 | 9.3 | 9.1 | 4.3 | 3.7 |
| 일본 | NTT | 3,805 | 103.7 | 108.2 | 93.4 | 15.1 | 13.6 | 8.4 | 8.7 | 29.0 | 25.2 | 7.3 | 7.0 | 10.8 | 14.6 |
| | KDDI | 4,066 | 70.5 | 48.5 | 41.6 | 9.6 | 8.1 | 5.9 | 5.1 | 16.2 | 13.9 | 5.9 | 5.8 | 14.5 | 13.8 |
| | Softbank | 5,757 | 74.6 | 50.9 | 47.3 | 49.9 | -1.4 | 32.0 | 4.4 | 50.0 | 4.4 | 4.6 | 44.5 | 39.3 | 4.7 |
| 중국 | China Mobile | 51.9 | 145.0 | 134.4 | 134.3 | 19.1 | 18.8 | 18.1 | 18.1 | 48.9 | 47.8 | 2.2 | 2.0 | 9.7 | 10.2 |
| | China Unicom | 5.0 | 19.6 | 51.7 | 50.4 | 2.0 | 2.0 | 2.4 | 2.4 | 15.4 | 14.3 | 1.0 | 1.0 | 4.5 | 5.0 |
| | China Telecom | 3.3 | 52.8 | 69.0 | 69.3 | 5.1 | 5.1 | 4.1 | 4.1 | 20.0 | 19.0 | 2.8 | 2.7 | 6.5 | 6.5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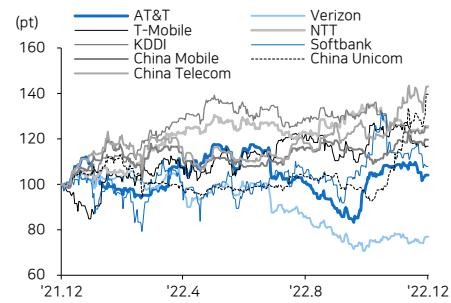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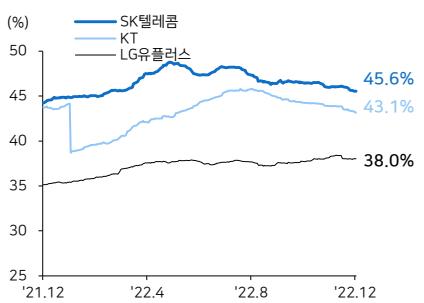
자료: FnGuide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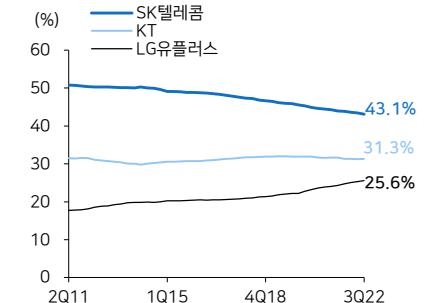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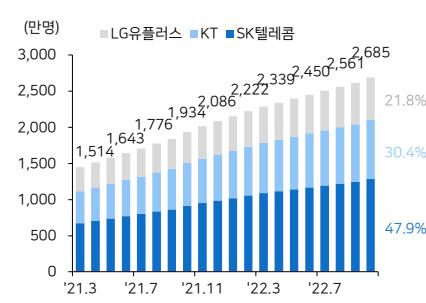
자료: FnGuide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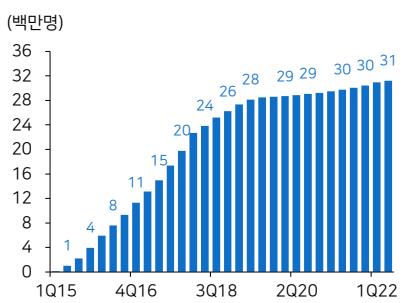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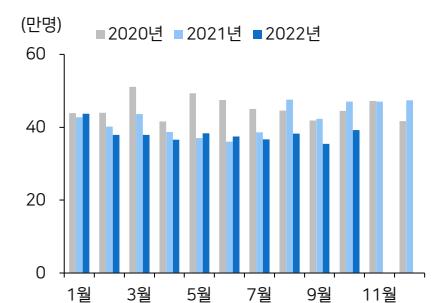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회원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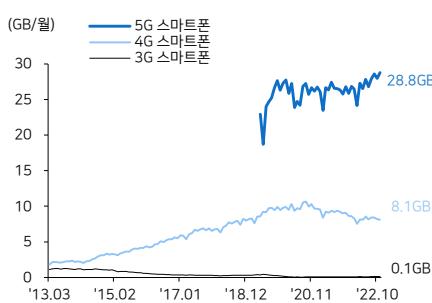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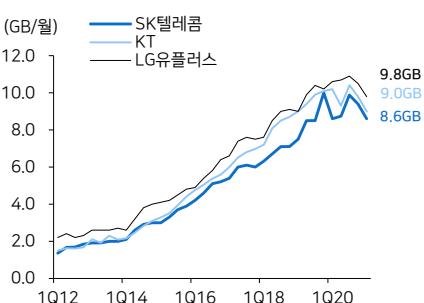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